

# 1920~30년대 후반 소래 지역의 성쇠와 지역사회의 대응\*

박정민\*\*

**초록** 현 시흥시는 북부의 소래권과 남부의 정왕권으로 '정체성·중심성'이 나뉘어 있다고 일컬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자 일제시기 소래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 소래 지역의 성쇠 과정을 다루었다. 일제시기 소래 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천군 소래면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뱃내장·포구를 비롯한 상업 그리고 농업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농·상업적 기반을 토대로 부천군 내에서는 다수의 인구를 기록한 지역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 경인지역이 군수공업지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천군 소사면, 부내면(부평)에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발'에 포함되기 위해 소래면 지역사회는 금융조합, 전등 설치, 사방공사 등의 인프라 설치를 도·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요컨대 소래 지역의 성쇠는 하향식 '개발'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제시기 소래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해방 이후 시흥시로 편입되는 군자·수암면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시흥시의 '단절'을 해명할 수 있다.

**주제어** 소래면, 소사면, 부평, 하향식 개발, 지역사회, 시흥시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한 제 18회 인문주간 학술대회 "근현대 시흥의 변화와 발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세심하게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머리말

현재 시흥시의 ‘소래’(蘇萊) 지명은 일반적으로 소래포구를 연상하게 하는 정도이지만, 일제시기 이래로 소래 지역<sup>1</sup>은 상업의 왕성에 따라 주요 도시로 기능하며 나름대로 경인권에서 지역적 위상을 지녀왔다. 지금의 소래 지역은 본디 근대적 행정체계 정리가 일단락된 1914년 이래 부천군 소래면이었으며 1973년에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은 시흥군 군자면·수암면의 그린벨트화를 비롯하여 시흥군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안양읍의 시 승격에 따른 시흥군의 막막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이었다. 『바라지의 고장 시흥』에 따르면 “기울어져 가던 시맥을 일으킬 수 있는 머느리가 시집을 온 격”<sup>2</sup>이라는데, 그만큼 소래 지역이 나름대로 탄탄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과, 역사적 주체로서의 활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상대적으로 윤택한 행정구역이 계속 ‘상실’되고, 산업 구조에서도 염업의 쇠퇴와 함께 시작된 1980년대의 시화공단 개발은 시흥의 경제적 중심지를 기존의 북부(소래권)에서 남부(군자, 현 정왕권)로 이동시키는 계기였다.

따라서 소래 지역의 역사적 성쇠는 현재 시흥의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된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20~30년대 소래 지역(부천군 소래면)을 지역 주체로 규정하여 사회경제적 기반을 분석하고, 당시 부천군 내 소사면(읍), ‘부평’과의 경쟁구도를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밝혀 소래면의 지역적 위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래면의 탄생과 잇따른 지역적 위상이 일제시기에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위상이 시화공단 설립에 따른 수암·군자의 개발로 시흥시의 경제적 중심이 이동하기 전까지 이어지므로

1 이 글에서는 행위주체로서의 ‘소래면’과 지역으로서의 소래면 일대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는 소래면으로 후자는 소래 지역으로 표기하였다.

2 『바라지의 고장 시흥』(2020), 수원: 경기문화재단, p. 47.

현대 시흥시의 분리된 ‘정체성·중심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원이기 때문이다.

일제시기 소래면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뱀내장(사천시, 蛇川市), 소래염전 등 상업과 제조업이 함께 갖춰진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인구의 증가, 인프라 부설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식민권력에 의해 ‘발탁된’ 부천군 소사면의 등장은 우시장 신설 등 인프라 부설을 둘러싸고 소래면을 긴장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1930년대 후반(전시체제기) 경인시가지계획에 따라 경성부와 인천부 사이 부천군 관할의 광활한 지역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었고, 공업·주택지대로 선정된 부평지구의 등장으로 공업화·도시화의 제반시설은 부내면, 소사면에 집중된 바 있다. 이는 부평읍으로의 승격운동으로 이어졌다. 부천군의 ‘전통’ 소래면은 신흥 도시인 ‘소사’, ‘부평’<sup>3</sup>과 지역사회를 매개로 1920~30년대 내내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다.

시흥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내용은 『시흥시사』<sup>4</sup>를 통해 집대성되었다. 이 외에도 행정구역의 변화가 일제시기~현대를 통틀어 빈번하였기 때문에 1914년, 1973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기준점으로 그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었다. 그중 서울의 확장을 경기도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시흥 행정구역의 변화를 조명한 연구<sup>5</sup>가 주목되는데, 이 글은 경인지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천군 내 소래면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제시기 경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사 연구에서 1920~30년대 ‘경인 지역’ 관념의 등장과 그 실현을 밝히는 연구,<sup>6</sup>

3 면으로 편제된 소사면과 달리 ‘부평’은 본래 부평군에서 유래하였으나 실제로 가리키는 지역은 부평역 주위이다. 이 지역은 오히려 부평군 시절의 읍치와는 거리가 있는 외곽이지만, 일제시기 전시하 병참기지로 주목받아 ‘(난)개발’되며 수많은 강제동원의 현장이 되었던 곳이다.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2007), 『시흥시사』 1~10, 시흥: 시흥시사편찬위원회.

5 이현군(2020), 「시흥의 역사지리학」, 『바라지의 고장 시흥』, 수원: 경기문화재단.

6 조율재(2023), 「1920~30년대 경인 관계의 변화와 ‘경인지역’의 형성」, 서울시립대학교

전시체제가 이후 경인시가지계획 자체와 계획 실현의 사례로서 부평지구의 형성을 다루면서 주택을 위시한 사회간접자본 부설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축적되었다.<sup>7</sup> 따라서 경인지역의 면(面) 주체가 겪은 성쇠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제국’ 일본의 국토·지방계획으로서 실시된 병참기지화가 가지는 하향식 지역개발의 성격과 효과를 밝히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글은 소래면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래면, 소사면, ‘부평’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어 ‘지역’이 행위주체로 활약한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흥시 ‘구도심’ 소래 지역의 기원과 1973년 편입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1920~1930년대 중반 소래면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지역사회

본래 소래 지역은 조선후기 인천부의 소속으로, 일제가 1914년 인천부 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을 통합한 후 부천군을 신설하여 그 소속으로 ‘소래면’을 만들었다.<sup>8</sup> 당시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의 호수(인구)는 각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 엄복규(2007), 「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의 전개」, 『인천학연구』 6, 인천학연구원; 이연경·홍현도(2019), 「부평 미쓰비시 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 『도시연구』 22, 도시사학회; 이명학(2023), 「총동원체제기(1938~45)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와 사택촌의 형성」, 『한국사학보』 91, 고려사학회.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시체제기와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황해호수화론’에 관한 연구인 양지혜(2021), 「총력전과 바다: 전시체제기 인천항 연안의 변용」, 『역사와 현실』 121, 한국역사연구회와 조병창 건설 및 운영과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인 이상의(2019),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 188, 국학연구원도 축적되었다.

8 朝鮮總督→京畿道長官(1914), 「驪州郡外六府面ノ廢合ニ關スル件」, 『郡面廢合關係書類』, CJA0002549, 국가기록원.



출처: 동아일보사(1934), 『朝鮮道別現勢地圖 京畿道』(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점선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이 소래면임

[그림 1] 일제시기 부천군 지도

각 509호(2,457인), 358호(1,872인), 326호(1,589인)였고 소래면의 호수(인구)는 1,193호(5,918인)였다. 소래면 주민 대부분은 조선인이고 일본인은 매우 적었다.<sup>9</sup> 주민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유업자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그다음은 상업, 수산업, 공업 순이었다.<sup>10</sup> 통·폐합 전 자료인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에 따르면 인천의 풍속은 “권농(勸農), 자염(煮鹽), 민순(民淳), 사간(事簡)”이라는데,<sup>11</sup> 호조별과 소래염전이 있는 소래면에도 들어맞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을 통해 각 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시기 부천군 소래면, 시흥군 군자면, 시흥군 수암면이 현재 시흥시의 모태가 되는데,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농업에 사회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소래면은 군자면과 수암면에 비해 포구와 우시장이 있어 수산업·제조업(소금)과 상업(우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편이었다. 특히 소래면

9 부천군 전체로 보더라도 1936년 8월 기준 부천군의 인구는 16,625호, 88,931인이며 그중 조선인 16,173호, 87,168인, 일본인 331호, 1308인, 외국인 121호, 455인으로 전체인구의 1.47%에 불과하다.

10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p. 184.

11 『仁川府邑誌』(1900), 奎173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7362\\_00](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7362_00)(접속일: 2024.7.1.). 이 자료는 1841년에 편찬된 『京畿誌』의 제1책에 실린 「仁川府邑誌」를 저본으로 20세기에 전사한 자료이다.

으로 통합된 (구)신현면 지역은 조선후기 이래 뱀내장(사천시, 蛇川市)이 열리는 번성한 곳으로 일제시기에는 소래면사무소가 위치하였고 소래염전이 건설된 지역이었다. 요컨대 전통사회의 상업 중심지 기능에 더하여 근대사회의 행정 중심지, 소금 생산의 중심지로서 활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20~30년대 소래면의 인구 변화와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보고 인접 면과의 비교를 통해 부천군 내 소래면의 위상을 파악해보겠다.

## 2.1. 인구와 직업별 종사자수

다음의 [표 1]은 1925~44년 사이 부천군 소래면의 인구통계이며 소래면의 지역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부천·시흥 지역에서 인구수 상위를 기록한 인천부, 부천군 계남면(후일 소사면)과 다주면, 시흥군 영등포면, 북면, 군자면, 수암면의 인구수도 함께 표시하였다. [표 2]는 『국세조사』(國勢調査) 자료를 통해 1930년 당시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 부천군 소래면, 계남면(소사면), 다주면의 직업별 종사자수를 정리한 것이다. 두 표의 비교군은 현 시흥시의 모태가 되는 면들 간 비교하기 위해, 또 소래면은 시흥군이 아니었기에 부천군 내에서의 위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것임을 밝힌다.

[표 1]에 따르면 시흥군 내 인구 상위를 기록한 면은 순서대로 북면, 군자면, 수암면, 영등포면이다. 주지하듯이 1930년대 영등포가 공업지대로 변화하면서 읍으로 승격한 후, 경성부로의 편입이 있었다.<sup>12</sup> 북면 역시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부천군의 경우 다주면, 소래면, 부내면, 계남면(소사면) 순으로 인구수가 많았다가 1930년 기준 계남면이 부내면의 인구수를 추월했다. 부천군 다주면과 부내면은 1930년대 후반 두 번에 걸쳐서 인천부로 편입되는데 전자는 대공장이 설치된 지역이었고 후자는 경인시가지계획에

12 관련 연구로는 김하나(2013), 「근대 서울 공업지역 영등포의 도시 성격 변화와 공간 구성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1925~44년 사이 시흥군 수암면, 군자면, 부천군 소래면, 계남면(소사면) 인구수(단위: 명)

	1925	1930	1935	1940	1944
인천부	56,295	68,137	82,997	157,572	
시흥군	66,656	73,617	94,511	72,037	82,024
영등포면 (영등포읍)	6,069	8,420	15,460	-	-
북면	10,139	13,333	19,068	-	-
수암면	8,377	8,324	8,932		9,317
군자면	9,708	9,968	12,187		12,021
부천군	76,172	81,927	100,693	68,267	79,871
다주면	7,679	9,444	13,649	-	-
소래면	7,664	7,885	8,899		10,757
부내면	6,276	6,606	7,896		
계남면 (소사면)	6,209	7,396	9,553		

비고: 인천부, 시흥군 영등포면 등은 비교를 위해 참고상 함께 정리하였음. 계남면은 1931년 소사면으로 개칭. '-' 표시는 1936년 혹은 1941년 행정구역 편입 시에 편입 되어 상위 소속 행정단위가 변경된 경우이며 별도로 인구수를 기재하지 않았음.

출처: 朝鮮總督府 編(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5年 道編 第1卷 京畿道』; 朝鮮總督府 編(1937), 『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10年 道編 第1卷 京畿道』,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1940, 44년 통계 중 시흥군, 부천군 통계는 『시흥시사-근현대편』, pp. 182-183, 각주 81에서 재인용. 1940년 인천부 통계는 『東亞日報』, 「늘어가는 인천 인구 전조선의 5위」(1940.5.1.)에서 인용. 빈칸은 미상.

선정된 '부평지구'였기 때문이다. 부천·시흥·인천의 병참기지화, 공업화, 도시화는 직접 대상이 된 지역의 인구 상승을 추동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농업을 주 생산기반으로 둔 지역의 인구도 동반상승시켰다. 그중 군자면과 소래면은 염전 노동자의 유입이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표 2]에 따르면 1930년 인구 기준으로 시흥군 수암면(43.5%),<sup>13</sup> 군자면(28.5%)은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으며, 부천군 소래면도 농업종사자의 비율(29.3%)이 높은 편이었다. 종사자의 업종별 비율을 비교하면

[표 2] 1930년 시흥군, 부천군 직업별 종사자수(단위: 명)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시흥군	19,194	338	45	2,739	1,802
수암면	3,618	49	-	37	114
군자면	2,844	258	-	377	150
부천군	26,989	2,636	185	826	1,674
소래면	2,307	129	4	41	155
계남면(소사면)	1,881	1	-	117	143
다주면	2,665	5	-	2,218	252
1930년	교통업	공무, 자유업	가사사용인	기타유업자	무업
시흥군	561	616	334	2598	45,390
수암면	1	27	23	65	4,390
군자면	15	45	37	61	6,181
부천군	652	366	339	1741	46,519
소래면	6	29	35	56	5,123
계남면(소사면)	62	60	53	233	4,846
다주면	41	48	28	794	5,394

출처: 朝鮮總督府 編(1932~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5年 道編 第1卷 京畿道』, 1932~1935(昭和7-10),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1448080>(접속일: 2024.7.10.)

시흥군 군자면, 부천군 소래면,<sup>14</sup> 부천군 계남면(소사면)이 유사하다. 군자면의 농업, 공업, 상업 종사자 비율은 각각 28.5%, 3.8%, 1.5%이며 소래면은 29.3%, 0.5%, 2%이고, 계남면은 25.4%, 1.6%, 1.6%이다. 종사자수로 비

1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14 소래면의 경우 1930년 소래수리조합의 물리구역을 기준으로 경지와 계급구성을 제시하면, 논과 밭의 비율은 66 대 34, 소작농호수는 59%로 모두 부천군의 수치보다 높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지주소작관계가 매우 발달했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내용은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p. 18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교하자면 소래면은 농업, 상업, 수산업, 공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으며, 군자면은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순으로, 계남면은 농업, 상업, 공업, 교통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다. 세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는 농업이 주축이었으며 이에 더해 상업과 공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군자면의 경우 공업종사자 비율이 3.8%로, 다른 계남·소래의 1.6%, 2%에 비해 높은데 이는 군자면전의 염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소래면의 경우 수산업자의 수(비율로는 1.6%)가 두드러지는데, 특산물인 새우를 비롯한 연안포구의 어업과 관련이 있다. 계남면(소사면)의 경우 교통업 종사자수가 많은데, 소사역이나 소사-신천 간 도로의 개통에 따른 철도, 버스 및 자동차 운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군 군자면, 부천군 소래면, 부천군 계남면(소사면)의 경제적 규모와 각 군내 지위는 1930년대 후반 경인시가지계획의 추진 및 전시체제기로 진입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군자와 소래가 쌀과 소금을 공급하는 기지였다면 소사는 인접한 다주면, 부내면과 함께 도시화·공업화에 편승하여 전시 병참·공업기지로 변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식민권력의 하향식 지역개발 추진이 면 지역을 어떻게 재편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2.2. 우시장 중심의 상업과 지역사회

현 시흥시 신천동은 일제시기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였다.<sup>15</sup> 소래면에는 성주산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한 ‘뱀내’<sup>16</sup>라고 부르는 하천이 세 갈래로 나뉘어 흐르다가 소래포구로 모였는데, 이 하천을 뱀내천이라고 불렀다. 따라

15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천부 신현면 신촌리와 사천리가 합쳐져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新川里)가 되었다(시흥군, 『시흥군지 下』, p. 1080).

16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지리적 정보를 조사한 조선지리지자료에 인천부 신현면의 시장으로 사천장(뱀내장)이, 하천명은 사천(뱀내)가 적혀 있다[朝鮮總督府(1911), 『朝鮮地誌資料京畿道』, p. 291].

서 신천리에는 이 뱀내의 이름을 딴 ‘뱀내장’이 있었는데, 특히 300여 년 가까이 이어진 우시장으로 유명했다. 뱀내장은 1·6일장으로 수원장과 함께 경기 서남부 일대의 주요 우시장으로 손꼽혔다.<sup>17</sup> 경기 서남부 일대의 장시는 수원장(4·9일)-뱀내장(1·6일)-황어장(3·8일)으로 이어지는데 뱀내장은 수원장과 황어장을 연결하는 고리였고, 1930년대 부천 소사장이 2·7일, 삼거리장이 5·10일에 신설되며 하루 단위로 연결되는 ‘장돌림’ 유통망이 성립되었다.<sup>18</sup>

뱀내장의 생우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1년간 축류 매매고가 23만 6,108원으로 수원장 다음 갈 정도로 매매고가 높았으며, 1일 소의 출장두수는 200두 내외이고<sup>19</sup> 연간출장두수는 경기 남부 최대 우시장인 수원 2만 4,300두(4·9일 합계), 안성 9,900두, 오산 9,100두, 뱀내장 9,000두였다.<sup>20</sup> 또 뱀내장 주위로 소를 맡길 수 있는 마방, 시장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주막들도 있어 이 일대의 상권을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다만 뱀내장은 생우를 제외하면 다른 품목의 거래는 많지 않아 주민들은 부천이나 인천의 시장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러 갔다.<sup>22</sup> 특히 소사역과 신천리, 대야리를 잇는 등외도로도 건설되어 물자집산과 사람의 왕래가 더욱 용이해졌다.<sup>23</sup> 뱀내장이 식민지기 경기 서·남부 일대의 손꼽히는 우시장이 된 이유는 이출우가 집결되는 인천이 그 배후지였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sup>24</sup>

17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p. 79.

18 『바라지의 고장 시흥』, p. 49.

19 善生永助(1926), 『朝鮮의市場經濟』; 『시흥시사5: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p. 23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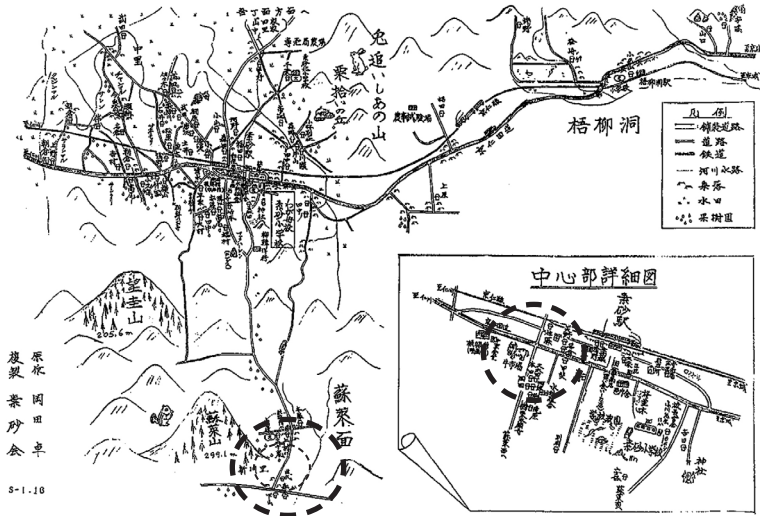
20 吉田雄次朗(1927), 『朝鮮の移出牛』, p. 81; 『시흥시사5: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p. 231에서 재인용.

21 『바라지의 고장 시흥』, p. 50.

22 『바라지의 고장 시흥』, p. 50.

23 「소사 사천장 간 신도로 금추 기공」, 『每日申報』, 1926.9.15.

24 『시흥시사5』, p. 233. 같은 책에서 2대째 소 중개업을 한 윤대열 씨를 인터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뱀내장이 경기 남부 일대에 있던 큰 우시장인 안성장(2·7일)-오산장(3·8일)-



출처: 부천시사편찬위원회(2002), 『부천시사5: 자료로 보는 부천』, p. 65에서 인용. 왼쪽 등그라미는 신천리 뱀내장을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은 소사 우시장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일본인 오카다가 그린 1940년대 부천시지도

인천은 전 조선의 물자가 모이는 항구도시로 1925년 4월 우역검역소가 지 설치될 정도였고,<sup>25</sup> 부천 역시 경성과 인천을 잇는 교통상 요충지로 상업 확대를 위해 ‘생우’ 시장의 설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1927년 인천에서는 도산정 부근에 우시장을 설치하고 인천부가 공영할 계획이었다.<sup>26</sup> 같은 시기 부천에서도 소사역 주위에 우시장을 포함한 공설시장을 건설하고자 계남면장을 위시한 지역주민들이 시장건설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운동

수원장(4·9일)-뱀내장(1·6일) 순서에서 유통경로가 끝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즉 ‘막장’이라 가지고 온 소를 다 팔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컸다고 한다.

25 「牛疫檢疫所増設」, 『朝鮮日報』, 1925.3.13.

26 「인천우시장 부영으로 결정」, 『每日申報』, 1927.6.5. 결국 인천에 우시장은 설치되지 못해 1938년 인천 정육업자들이 다시 진정운동을 펼쳤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관련기사는 『朝鮮日報』, 「우시장 없는 인천에 급속 실현을 촉진」(1938.12.2.)을 참조.

에 박차를 가하였다.<sup>27</sup> 이 시기 소래면의 상업은 뱀내장의 우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 인천, 부천 지역사회의 우시장 개설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천의 우시장 설립에 대해 소래면장 이도영 등 20여 인은 인천부영 우시장에 대한 반대 진정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소래면민의 논리는 뱀내장이 경기도 중에서 2위인 큰 시장으로 수입이 상당한데다가 이 시장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면민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천에 우시장이 설립되면 뱀내장이 폐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소래면민의 “사활문제”라는 것이었다.<sup>28</sup>

이어서 소사역 주위의 시장 설치에 대해 도 당국에서는 시장 설치를 조건부로 인가하여 가축류 중 생우를 제외하였다. 생우를 제외하게 된 것은 소사 주민들에게 유감이었지만 장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조건을 수용하고 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해, 1927년 10월 2일에 개장하였다.<sup>29</sup> 시장의 경영은 소사계리조합(소사계리주식회사)이 맡았다.<sup>30</sup> 장시는 음력 2·7일에 서며 월 6회 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로써 소사에는 각종 관공서, 전기 등 인프라, 화물 발송을 위한 소사역 개축 및 선로 증설이 잇따라 ‘대소사(大素砂)’로의 발전이 예상되었다.<sup>31</sup> 우시장 제외는 유보적인 조치였을 뿐, 이것은 1930년대 부천군 내 소래면과 소사면 사이 경쟁의 서막이었다.

27 「소사역전에 공설시장 건설 불원간 허가될 듯」, 『朝鮮日報』, 1927.2.17.

28 「인천우시장 존폐 부천 사활문제」, 『朝鮮日報』, 1927.7.12.

29 「소사시장 인가」, 『朝鮮日報』, 1927.9.19.; 「소사시장 곧 인가돼 10월 2일 개시」, 『朝鮮新聞』, 1927.9.23.

30 「반감을 가져 무실의 무함」, 『每日申報』, 1934.10.30.

31 「소사시장은 장래발전유망」, 『朝鮮日報』, 1927.10.5.

### 3. 1930년대 후반 하향식 지역개발에 대한 소래 지역 사회의 대응: ‘소사’, ‘부평’과의 경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은 인천·부천·시흥 지역에 전시병참기지화에 따른 도시화·공업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시기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 경인시가지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부천군 일대가 개발되어 ‘부평’이 되기 전까지 ‘소사’는 여전히 농·상업 중심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계남면이 개칭(1931년)한 소사면은 경인선 소사역과 경인도로의 통과지라는 교통상 주요지에 위치해 있었고 이러한 편의는 상업과 행정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호조건이었다. 소래면 역시 농·상업 중심에 더해 1935년을 전후하여 소래염전이 건설·운영되는 등 부천군 내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 소사금융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소래면장 이도영과 소사면장 원영상파로 나뉘고 표도 각각 17표로 동률을 기록하자, 연장자 우선으로 소래면장 이도영이 재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영상파에서 불만을 표출하여 “(아)수라장화”될 정도였다.<sup>32</sup>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지역사회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내 두 지역, 지역사회 간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했다. 지역유력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속된 데에 더해, 외적으로 경인시가지계획이 작용하여 소사면을 치고 나가게 했다.

이 시기 소사에는 소사계리주식회사(이하 계리사)가 설립되어 이 회사가 산업조합, 금융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다.<sup>33</sup> 계리사는 본래 정조(正租)의 출회와 기타 농산물의 집산을 담당하던 소사계리조합인데, 사업을 확충하면서 일상용품 시장(추후 우시장 포함)을 경영하고 가축·상업·비료와 관련한 자금 융통 및 농산물 위탁판매에 나서고 있었다. 이 계리사의 구성원은 사장 칸베 마사오(神部正雄), 상무 원인상, 취체역 스토 오사다오(須藤定雄), 이성

32 「소사금융조합의 개선운동맹렬 이원양파로 대립 길항 결국 이도영씨 재임」, 『每日申報』, 1933.4.20.

33 「부천지방소개」, 『東亞日報』, 1936.8.5.

환, 최병희, 감사 최원기, 야나이 덴지로(柳井傳次朗)이다. 먼저 칸베(神部)는 1925년부터 소사시장의 설치를 면장 및 지역유력자와 함께 도 당국에 요구해 1927년의 설치로 관철시킨 인물이다.<sup>34</sup> 또한 1933년 경기도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소사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원인상은 당시 “미곡계의 패왕”이라 불릴 정도로 정미업계의 거두였고, 스토(須藤)는 부평수리조합 구역 내 대농장을 경영하는 한다(反田)농림합명회사의 농장지배인이었다. 최원기는 “부평평야의 산물은 전부 해당 정미소에 소화되리라”고 언급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소사정미소의 주인이었다.<sup>35</sup> 계리사의 구성원은 쌀 생산과 정미, 유통이라는 공통 경제기반 위에 조직을 꾸려 상품과 유통망을 확장해나갔던 것이다.

민족을 차치하고 소사 지역사회 내 경제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전(全) 조선 지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sup>36</sup> 이들의 논리는 ‘지방발전’, 즉 ‘지역개발’이었다. 전 조선에 빗발치는 ‘지역개발’의 목소리는 변영희, 기성회와 같은 유력자 조직에서 모여 주민운동으로 결집하게 된다. 전술한 칸베와 원영상은 1935년 “지방발전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소사변영회를 결성했다.<sup>37</sup>

계리사의 사장 칸베는 소사면장 원영상, 부친군수 허섭<sup>38</sup> 등과 함께 1920년대 소사시장이 설치될 때 제외된 우시장을 당국에 요구하였고 끝내 달성시켜 1934년 소사 우시장이 개설되었다.<sup>39</sup> 농업과 상업에 기반을 둔 소

34 「素砂市場，漸く認可さる，十月二日市場開き」, 『朝鮮新聞』, 1927.9.23.

35 이상 인물에 대해서는 「부친지방소개」(『東亞日報』, 1936.8.5.) 기사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6 문영주(2009), 「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 『인천학연구』 10, 인천학연구원.

37 「소사시민 좌담회」, 『東亞日報』, 1935.7.2.

38 허섭은 1937년 11월 수원군수로 영전하였고, 김포군수였던 장영환이 부친군수에 영전하였다(「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1937.11.16.).

39 「경인선 소사에 가축시장 설치」, 『朝鮮日報』, 1934.12.5.

사 지역사회의 유력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제조업이 없는 상황에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매매의 확대를 달성하기에 안성맞춤인 대상이 바로 우시장이었던 것이다. 소사 우시장이 개시할 때 계리사는 1,500원어치의 경품을 마련하고 곡예단까지 초빙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계리사의 숙원과 갈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40</sup> 소사의 우시장 매매고는 개시 때 농우 1천 여 두가 운집하고 수백여 건이 매매되는 등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sup>41</sup>

그렇다면 언제부터 소사 지역이 공업화·도시화되었을까? 1937년 인천시가계획의 시행이 공식 결정되면서 경인 지역의 개발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이내 1939년 경인 지역에서 대규모 공업지역을 조성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sup>42</sup> 1939년 10월 제5회시가계획위원회에서 약 1억 평을 경인시가계획(이하 「계획」) 면적으로 결정하였고, 그중 소사면은 소사지구 혹은 부평지구로 구획되어 공업용지와 주택용지 건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첫 사업으로 부평지구의 약 90만 평의 공업용지 조성과 60만 평의 택지 조성이 결정된 것이 1940년 1월이었다. 그리고 사업은 1940년 중반부터 개시되었다.

「계획」이 경기도와 총독부에서 논의되던 시기인 1938년, 이미 부천군의 '부평'에는 일본국산자동차공장, 히로나카(弘中)상공회사가 설립되는 등 공업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sup>43</sup> 또한 공업지구, 주택지구, 토지구획 정리 지구의 선정과 대공장 설립이 '부평'과 소사면에 이어졌다.<sup>44</sup> 지역사

40 「소사에 우시장」, 『東亞日報』, 1935.1.10.; 「소사가축시장 21일에 개시」, 『每日申報』, 1935.1.20.

41 「소사가축시장 성적이 자못 양호」, 『朝鮮日報』, 1935.1.30.; 「소사가축시장」, 『東亞日報』, 1935.2.6.

42 이하의 경인 지역 개발에 관한 내용은 부평사편찬위원회(2021), 『부평의 산업과 사회: 부평, 도시가 되다』, 부평사 제3-1권, pp. 31-44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3 「한해민에게 우선권 공사장에 취업알선」, 『朝鮮日報』, 1939.8.26.

44 부평에는 1938년 2월 조선국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 건설을 준비, 동년 5월에는 히로나카상공회사가 공장 건설을 시작, 1939년 5월에는 일본고주파중공업이 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건설에 착수했고 경성공작주식회사, 도

회에서는 경인 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화·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천군수 및 부내면장, 자동차공장 및 히로나카상공회사 임원이 합세하여 부평번영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개발 대상이 된, 그리고 「계획」에 포함될 것이 자명해보이는 부천군 부내면, 소사면, 오정면은 인천부가 편입하고자 했다. 이 편입은 ‘인천부세진흥회’와 같은 지역유력자 단체가 적극 요구한 바 있다.<sup>45</sup> 소사면까지 인천부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그 소식만으로도 공장 부지 일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고 이에 당국이 브로커 문제에 「토지수용령」 적용을 검토하는 등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46</sup> 또한 상술한 부평번영회는 경인 지역의 개발을 상징하는 ‘경인 일체화’에는 적극 참여하면서도 부내면을 부평읍으로 승격시킬 것을 결의하는 데 이르렀다.<sup>47</sup> 조선총독부와 경기도 당국이라는 식민권력이 추진하는 하향식 ‘지역개발’에 대해 각 지역사회는 개발열로 들썩이고 있었다.

소래 지역도 당대 지역사회가 염원하던 ‘공업도시로의 발전’에 편승할 기회가 있었다. 먼저 소래염전이 방산동과 포동 일대에 1935~37년 사이에 준공되었다.<sup>48</sup> 본래 소래염전은 1구, 2구, 3구가 차례로 건설되었으며 그중 3구가 당시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 방산리,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 갯벌에 건설된 것이다. 3구의 부지는 260만m<sup>2</sup>, 실면적은 190ha였다. 1938~1939년

---

코자동차공업주식회사,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오사카섬유공장, 부평요업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육군조병창도 1939년부터 제1제조소 건립에 착수하여 1941년 5월 준공했다(『부평사』, p. 33). 소사에는 1935년부터 동산산업주식회사, 일흥사 조선공장, 하천오류동주공장, 유한양행소사공장, 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요시다철공소, 조선주조주식회사 등 자본금 규모가 상당한 중공업 공장이 1941년까지 줄지어 들어섰다. (『富川郡素沙面二閔スル調書』, 국가기록원, pp. 220-221)

45 「소사등 5면을 편입 인천부역 4배확장?」, 『朝鮮日報』, 1938.5.8. 인천부세진흥회의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류창호(2023), 「1920~30년대 ‘대인천’ 건설 운동과 지역주의」, 『역사와 현실』 128, 한국역사연구회를 참조할 수 있다.

46 「인천부근공장후보지 지가 조상을 방지」, 『朝鮮日報』, 1938.6.1.

47 「부평군 부내면 읍으로 승격운동」, 『朝鮮日報』, 1938.5.28.

48 이하 소래염전 3구에 대한 내용은 남동구20년사편찬위원회(2010), 『남동구20년사』, pp. 489-497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구의 제염량은 각각 약 360만kg, 1,690만kg을 기록했고 1939년 1월 기준 2등염 60kg의 판매가는 1.07원이었다. 소래면은 군자면과 함께 전시체제 기 소금공급의 기지로 활약하였는데, 특히 공업용 원염(原鹽)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공업용 염 생산은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소다공업과 관련이 있기에 일대에 화학공장 진출이 모색된 것은 그럴 만한 일이다. 다만 소래면에서 그 외 다른 제조업은 크게 성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36년 8월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천군의 공업생산액 32만 원 중 절반인 16만 원이 주류생산이었는데, 특히 소래면 신천리 소재의 일본인 大月一이 경영하는 소래양조장이 주목할 만했다.<sup>49</sup>

두 번째로 1938년, 일본대자본 기업이 소래면 일대에 대공장을 설치하고자 실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규모는 2~3천만 원 내외로 소래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할 만한 금액이었고, 그 ‘주인공’은 미쓰이, 미쓰비시, 일본질소(노구치)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공도(工都) 인천을 비롯하여 부천군 소래 방면에까지 모모재벌이 진출하여 모종의 대공장을 건설하려고 방금 암중비약을 하는 중이라 한다. 그 지방은 남으로 경부철도, 동으로 경인철도, 서로는 수인철도를 끼고 있어 교통수가 편리할 뿐 아니라 경기도 소래염전이 불원한 시일에 준공하게 됨으로 동 소래면 대야리, 계수리를 중심으로 삼천만원 자금의 대공장을 건설하여 잿물(조달), 염산, 유안 등 화학적 공산업을 대대적으로 계획 중이라는 바 이러한 공장이 실현되는 때는 조선비료의 공급 부족을 족히 완화할 수 있다하며 그들 재벌은 三井(미쓰이-이하 인용자), 野口(노구치), 三菱(미쓰비시) 등이라 한다.<sup>50</sup>

49 「부천지방소개」, 『東亞日報』, 1936.8.5. 大月一은 지원병으로 나가 사망. 소래면과 지역사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50 「부천군 소래 방면에 화학공장 진출설」, 『朝鮮日報』, 1938.2.17.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위와 같다.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바가 있는데 건설될 공장은 소다(조달)를 생산하는 것이며 곧 건설될 소래염전에서 생산된 공업용 염(鹽)을 원료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자료상의 한계로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대공장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래주민들은 굴하지 않았다. 당시 부천군 내의 중심으로 떠오른 소사면에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농산물 시장과 정미소, 금융조합과 면사무소 및 학교 등 농촌 지역민이 활용하는 인프라가 전부 구축되어 있었다.<sup>51</sup> 시설이 부족한 소래 지역사회는 금융조합 지소, 우편소, 동력선, 전등가설 등을 당국에 꾸준히 요구하고 일부 달성하였다. 그중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금융조합의 설치와 전등 설치, 소래산 사방공사이다. 1935년 7월 소래면에서 “지방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시민대회에서는 ① 소사금융조합 지소를 설치할 것, ② 전기를 끌어올 것, ③ 소래산에 사방공사를 시행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sup>52</sup> 또한 면장 김진형을 위시한 이순필, 이범섭 등의 지역 유력자들은 때마다 힘을 모아 인프라 설치에 대해 당국에 진정하였고, 경성전기의 전기를 끌어와 소사역부터 뱀내장까지 전등을 가설하는 데 성공했다.<sup>53</sup>

김진형은 전임 면장 이도영이 수리조합 회계 비리로 사임하자 임명된 면장으로 각종 소래면의 현안에 대해 유력자들과 함께 상위 행정당국에 진정운동을 펼쳤다. 이순필은 뱀내장 “상계의 거두”로 원(元) 시흥 출신이며 공공을 위한다는 호평을 듣는 유력자였다.<sup>54</sup>

아래의 기사는 1939년 당시 공업도시의 ‘주변’ 농촌으로서 소래면이 처해있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전문을 인용했다.

51 「오곡리 구역변경 동민 반대운동」, 『東亞日報』, 1939.3.30.

52 「소사발전 위해 교섭위원 상경」, 『東亞日報』, 1936.2.22.

53 「소래지방민들 전등가설운동」, 『朝鮮日報』, 1936.11.22.; 「부천군 소래시장에 전등가설공사」, 1937.1.21.

54 『東亞日報』, 1936.8.5., 앞의 기사.

### 소래지방의 당면문제

현금의 모든 기관과 시설이 현금의 모든 기관과 시설이 도시중심주의에 편벽되고 산업의 원료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지이오 국민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어촌에 있어서 그들을 위한 기관과 시설이 너무도 빈약 혹은 개무상태에 있어 그들 대중에게 기다의 무리와 희생을 강요케 되며 산업발전의 지지와 파행성을 면치 못하게 됨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 동시에 관계당국과 일반식자의 최대관심사이다.** 이에 소래는 부천동남단에 있는 농산어촌으로서 또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으며 **지방 발전상 불소한 지장**을 생하고 있나니 이에 긴급 중요한 문제를 들어서 관계당국과 유지 제씨의 관심을 환기코자 한다.

### 금조지소의 설치

소래는 경인간 중심지이며 인수간(인천-수원, 인용자) 중앙지로서 수천 정보의 평야와 수백 정보의 염전, 백여 정보의 소규모인 수리조합, 어촌 포구가 있는 관계상 선박의 출입과 부천군내 제1위인 우시장 등을 배경으로 농산물과 기타 해산물의 연산 판매고가 수십만 원을 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수품 공급기관인 상점의 은성(殷盛)은 소래시장 설치 이래 더욱 괄목할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계절적이나마 군농회 주최로 각종 농산물 공동판매 등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이 비추어 금융기관의 필요는 초미의 급무인 것이다. 현재 소래는 20~30리나 원격한 소사금융조합구역으로서 금융취인상 불편이 지대하고 또한 과다한 금액은 경성 혹은 인천 등지의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바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래금조지소 설치를 강조하는 바이다. 유지 제씨가 2, 3차나 맹렬한 지소설치운동을 한 바이니 시종이 여일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 소래에 조합원이 천 명에 달하니 즉 이 조합원들이 매년 4~5차쯤은 동 조합에 왕래하게 된다. 1인당 적어도 2~3원의 경비를 쓰게 된다. 이에 바라노니 당국은 재삼고려하여 소래지소를 설치할 것이오, 지방인사는 이에 적극적 원조와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리하여 일반세민의 불리를 제거하고 **소래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sup>55</sup>

“제반 공장이 설치되는 오늘에 있어 소래에는 정미업이나마 동력선이 없는 관계로 유지치 못하여 소사 지방으로 전부 쌀과 보리를 쪼으러 가”<sup>56</sup>는 현상은 부천군 내 ‘부평’과 소사면에 비해 산업화되지 못한 소래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개발 지역과 인접하고 일찍이 소사-신천, 대야리 사이 도로가 건설되어 교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소래면의 미산리, 포리, 신천리, 대야리 등의 지가가 덩달아 상승하는 등 지역이 개발열에 휩싸였다.<sup>57</sup> ‘경인일체’의 이름으로 지역을 휩쓴 개발열은 “소신(소사-신천) 일체”<sup>58</sup>로, 즉 소래면을 소사면에 더욱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소래면 면장과 지역 유력자들은 전술하였듯이 소사에서 뱀내장이 있는 신천리까지 124주(柱)의 전등 가설뿐만 아니라 소사-신천을 오가는 도로의 개축을 적극 추진하였다. 소래면의 ‘유지(有志)’는 소신도로개축기성회를 조직하였고, 기존에 하우고개(下峴) 때문에 우회하던 도로를 직선으로 개축할 것을 요구하였다.<sup>59</sup> 이 도로는 3등도로이며 1939년 10월 궁민구제사업으로 총공사비 1만 6,400원으로 착수되어 12월 준공되었다.<sup>60</sup>

1940년대 소래면은 공업도시로 변모하지는 못했지만 우시장,<sup>61</sup> 염전, 산미(産米)라는 전통 형태의 산업 구조를 유지했고 나아가 인구도 1,800호(약 1만 명)로 유지했다. 1937년 소래면 뱀내장의 경우, 1936년 8월 기준 일반상점 매대고 3,894원과 축우 매대고 1만 원, 총 1만 3,894원이었던 데 비

55 「금융조합의 지소와 우편소 설치 긴급」, 『朝鮮日報』, 1939.1.12.

56 「동력선 설비 요망 소래지방의 정미업자 쫓기」, 『朝鮮日報』, 1939.7.6.

57 「발전에 앞서서」, 『朝鮮日報』, 1939.7.6.

58 「소신간의 도로 개축공사 착수」, 『朝鮮日報』, 1939.10.1.

59 「현안의 소신도로 소래에서 기성회 조직」, 『朝鮮日報』, 1939.3.18.

60 『朝鮮日報』, 1939.10.1., 위 기사.

61 「소래가축시장 계돈류도 매매」, 『朝鮮日報』, 1938.5.26.

해 1937년 9월 기준 5,000원으로 떨어졌다.<sup>62</sup> 다만 매출 감소는 인근 우시장 설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만주사변 이후의 불경기로 인한 현상이라 이해되고 있었고,<sup>63</sup> 소사 우시장 개설로 타격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1938년 기사에 따르면 ‘대변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천군 소래면 뱀내장은 종래 소장으로 사백여 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유명한 우시장이다.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되어 인구도 상당할 뿐 외라 경각지에서 각종행상이 운집하여 대변장을 이루는 중 가축시장에 닭, 도야시장까지 있어서 일반생산자나 양계양돈자에 편리함이 적지 않다고 한다.<sup>6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소래 지역사회는 ‘개발지구’와의 인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자 소사 지역과의 교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요구는 소래면-경기도 당국으로 이어져 실현되었다. 다만 이미 소사면에 대공장이 설치되고 「계획」에 따라 공업지구, 주택지구로 설정되어 이 지역이 ‘개발’의 중심에 들어간 반면, 소래면은 소금과 쌀 생산이라는-오래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가 요구받았듯이-원료생산지로 기능하며 증미계획·농촌진흥운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제국일본과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전쟁 수행을 위한 국토·지방계획이 하향식으로 추진되면서 공업·주택지구로 선정된 소사면과 원료공급지로 선정된 소래면의 길이 갈라지게 되었다. “미(米)산지로 발달하고”, “산업 발흥에 수반하여 공장 진출이 현

62 「사천시황 부진」, 『朝鮮日報』, 1937.9.21.

63 「사천시의 상업부진」, 『朝鮮日報』, 1937.12.11. 경성부영시장의 1938년 8월 가축 매매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21만 8,791원 증가한 76만 8,181원을 기록했으며 당시 기사에서는 군수경기의 반영이 원인이라 평가했다.

64 『朝鮮日報』, 1938.5.26., 앞의 기사.

저한 공장지대로 발전하고 있는” 소사면은 “시구정리 등 공공시설을 다수 요하므로” 읍제 실현을 당국에 요청하였고, 결국 1941년 소사읍으로 승격했다.<sup>65</sup>

소래면과 지역사회가 지켜온 우시장과 소래염전은 해방 이후에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활약하였다. 뱀내장은 1980년대 폐장될 때까지 부천 상권과의 연결 속에 상업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며,<sup>66</sup> 소래염전은 1970년대 기준 생산량이 국내 수요의 30%를 담당할 정도였다.<sup>67</sup> 한편 1960년대 부천을 포함한 ‘경인공업지구’의 지정은 공업지대의 빠른 조성을 야기하였고, 더욱이 서울 도시화의 심화는 주위 위성도시로 인구를 밀어내고 있었다. 이에 당시 박정희 정권은 서울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주위 위성도시를 시로 승격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부천군은 폐치되었고 부천군에 속한 면들은 시흥군과 김포군으로 편입되는데, 소래면은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sup>68</sup>

『통계연보』(부천군) 자료를 통해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기 직전인 1963, 1970년 인구수 및 농업종사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63년은 총인구 1만 9,601인에 농업종사자 6,949인, 1970년은 2만 86인, 농업 1만 3,349인이다.<sup>69</sup> 197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57.4%가 농업(그중 75.5%가 논 경작)에 종사하고 서비스업·기타가 41.7%를 차지했으나, 여전히 공업은 소구

65 「富川郡素沙面ニ関スル調書」, 국가기록원, p. 213.

66 『바라지의 고장 시흥』, p. 49.

67 『바라지의 고장 시흥』, p. 51.

68 이상의 부천시 승격에 관한 내용은 부천시사편찬위원회(2002), 『부천시사3』, pp. 7-11을 참조하여 정리.

69 富川郡(1963), 『富川郡統計年報』 8, pp. 14-16; 『富川郡統計年報』, 1970. 두 자료 사이에 업종별 인구수를 조사한 메타데이터가 달라 부득이하게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총인구와 농업인구수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모일 뿐이었다.<sup>70</sup> 다만 소래면의 제조업 분포 비율은 군자·수암면의 1975년 약 1%, 약 2%, 1979년의 약 4%, 약 5%에 대해 15.56%, 20%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의 비율이 높았으며,<sup>71</sup> 경인공업지역 및 인천·부천 생활권과 인접한 소래 지역의 인구증가 폭은 군자·수암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1975~1990년간 구(舊)소래읍사무소 주변이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1980년 신천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것에서 기인했다. 1973~1987년까지 소래지역은 136.5%, 수암지역은 10.7%의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반대로 군자권은 30% 감소했다.<sup>72</sup>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소래면은 1980년 12월 소래읍으로 승격했다.<sup>73</sup> 인구팽창은 또다른 행정구역 개편을 예고했다. 1988년 기준 소래읍의 인구는 6만 1,000여 명, 군자면 1만 5,000여 명, 수암면 1만 7,000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미 당시 시 승격 인구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sup>74</sup> 이때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시세확장을 위해, 또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소래읍을 인천시로 편입하자고 내무부에 건의했고, 부천시는 원래 부천군 소래면이었다는 연고를 내세워 부천시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때 소래읍민들은 “인천이나 부천시로 편입되느니보다 독자적인 「소래시」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래시 승격 추진운동을 벌였고, 이는 1989년 시흥시 승격으로 이어졌다.

70 사단법인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1974), 『蘇萊都市基本計劃 1990』, 始興郡, pp. 50-52.

71 『시흥시사3』, p. 436.

72 이상의 소래, 군자, 수암의 인구에 관한 내용은 『시흥시사3』, pp. 445-446을 참조하여 정리.

73 「35개면 읍승격 1일부터」, 『매일경제』, 1980.12.1.

74 아래의 내용은 「군 민원 인근 5개시서 담당... 시흥 내용 따라 처리지역 달라 “민원”」(『경향신문』, 1988.8.8.)을 참조하여 정리.

#### 4. 맺음말

본 글에서는 1920년대 초 유사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진 소래면과 소사면이 1930년대 후반 식민권력의 하향식 지역 ‘개발’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지역사 차원에서도 소래면이 부천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역유력자와 지역사회의 ‘운동’을 통해 살아남은 과정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현 시흥시 소래지역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겠다.

일제시기 소래 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천군 소래면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뱀내장·포구를 비롯한 상업 그리고 농업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농·상업적 기반을 토대로 부천군 내에서는 다수의 인구를 기록한 지역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 경인지역이 군수공업지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천군 소사면, 부내면(부평)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발’에 포함되기 위해 소래면 지역사회는 금융조합, 전등 설치, 사방공사 등의 인프라 설치를 도·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요컨대 소래 지역의 성쇠는 하향식 ‘개발’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제시기 소래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생활권이 해방 이후 함께 시흥시로 편입되는 군자·수암면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시흥시의 ‘단절’을 해명할 수 있었다.

1973년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은 단절적인 조치였다. 상권·교통권 등 생활권을 고려하면 부천시(소사읍이 승격)나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래주민들은 1980년대에 소래 중심의 시 승격을 외치면서 군자와 수암면을 포괄하는 소래시승격운동을 펼쳤다. 비록 일제시기 이래 사회경제적 기반과 생활권이 달랐을지라도, 1973년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 이래 지역민들의 노력 끝에 현재의 시흥시가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 『仁川府邑誌』(1900),奎173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朝鮮總督府(1911),『朝鮮地誌資料 京畿道』.  
 「驪州郡外六府面ノ廢合ニ関スル件」(1914),『郡面廢合關係書類綴』,CJA0002549, 국가기록원.  
 朝鮮總督府 編(1932),『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10年 道編 第1卷 京畿道』(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소장).  
 朝鮮總督府 編(1937),『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10年 道編 第1卷 京畿道』(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소장).  
 富川郡(1963),『富川郡統計年報』.  
 富川郡(1970),『富川郡統計年報』.  
 사단법인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1974),『蘇萊都市基本計劃 1990』,始興郡.  
 『朝鮮總督府官報』  
 『每日申報』,『東亞日報』,『朝鮮新聞』,『朝鮮日報』,『朝鮮中央日報』  
 『매일경제』,『경향신문』

### 논저

- 경기문화재단(2020),『바라지의 고장 시흥』.  
 남동구20년사편찬위원회(2010),『남동구20년사』.  
 문영주(2009),「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인천학연구』 10, 인천학연구원.  
 부천시사편찬위원회(2002),『부천시사3: 부천의 성장과 발전』.  
 부천시사편찬위원회(2002),『부천시사5: 자료로 보는 부천』.  
 부평시사편찬위원회(2021),『부평의 산업과 사회: 부평, 도시가 되다』, 부평사 제3-1권.  
 시흥군지편찬위원회(1988),『시흥군지 下』.  
 시흥시사편찬위원회(2007),『시흥시사』 1~10.  
 조유재(2023),「1920~30년대 경인 관계의 변화와 '경인지역'의 형성」,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 ABSTRACT

# The Rise and Fall of the Sorae Area and the Activitie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1920-30s

Park, Jeong Min\*

The current Siheung City is said to be divided into the Sorae area in the north and the Jeongwang area in the south in terms of ‘identity-centeredness’. To investigate this phenomenon histor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socioeconomic foundation of the Sorae a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Sorae area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local community. The Sorae a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as administratively part of Sorae-myeon, in Bucheon-gun, and its socioeconomic base comprised commerce and agriculture, including the procurement of snake guts and shells. Based on this agricultural and commercial base, the area had a large population within Bucheon-gun, but it was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Gyeongin as a military-industrial zone in the late 1930s, and various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Sosa-myeon and Bunae-myeon (Bupyeong) in Bucheon-gun. Nevertheless, to be included in this ‘development’, the Sorae-myeon community strongly demanded that the provincial and county authorities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financial cooperatives, electric lights, and road construction. In short, the rise and fall of the Sorae area is significant as an example of how the status and function of a region changes depending on top-down 'development'. It also explains the 'disconnection' of modern Siheung City because the socioeconomic base of the Sorae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different from Gunja and Suam-myeon,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Siheung City after liberation.

**Keywords** Sorae, Sosa, Bupyeong, Top-down Development, Siheung City

